



## 도자기 장인으로의 길을 묵묵히 걷다

손에 묻은 흙가루, 거친 손.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아름답고 고운 빛을 가진 도자가 태어난다. 우연히 시작한 도공으로의 길.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도예가' 한길로만 가고 있다. 그가 걸은 길이 쉽기만 했을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장인의 길을 걸은 도예가 예술요 유기정 씨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 그, 평생 업을 찾다

어두운 작업공간 안에서 물레를 돌리며 작업에 열중하는 사람. 찾아온 낯선 방문객을 보고 살짝 웃음을 지어보인 후 이내 작업에 열중한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 말린 도자기에 예쁜 꽃을 조각하는 부인. 그리고 장마다 가득 찬 도자기.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며 따뜻함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도예가 유기정 씨의 작업실이다.

도자기 굽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28년간 오직 한길만을 고집해 경기도에서 뽑는 '도예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예술요 유기정 씨는 어린시절 가난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자기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이것이 그의 숨은 재능을 살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타고난 손재주가 빛을 발한 것이다.

"우리 어릴 때는 먹고사는 것이 다 어려웠죠.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도예촌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던 시절에 그저 선택한 일이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저에게 숨겨진 재주를 만난 것이었죠. 도자기를 하면서 아내도 만나고 이 일을 평생 업이 되었으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손재주가 빛을 발하다

1975년 3월, 지순택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성형 공부의 기초를 수학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자기와 인연을 맺은 그는 3년간의 인고의 노력으로 조선백자 성형을 완성했으며, 1983년 4월 향산 임향택 선생의 문하에서 12년간 청자·백자 부분 성형을 완벽하게 수련해 전통도자 기능인으로서의 토대를 쌓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1991년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도자기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2002년 8월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각종 도자기관련 공모전 및 대전, 경진대회에서 총 42회 입상하는 등 탁월한 기량을 뽐냈다.

"항상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만이 새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는 그는 1995년 예술도예연구소를 설립해 현재 새로운 디자인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등 제 길을 알고 항상 제 길을 가는 모범적인 장인(匠人)이다.



### 공기처럼 익숙하지만 없으면 안돼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 후회도 없습니다.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오랫동안 도자기만 만들다보니 다른 생각은 나지도 않아요. 길이란 것은 그냥 걷다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다보니 이제 저에게 도자기는 그저 공기처럼, 밥처럼 익숙하지만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자기,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만든 도자기는 그 이상으로 신비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담기는 음식에 따라 화장을 달리하는 여인네처럼 수줍은 자태마저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도자기에는 그 아름다움이 다칠까봐 소중하게 다룬 동방예의지국 우리 선조들, 800여 년 동안 이어온 그들 생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도자기의 이름을 잇기 위해 도자기와 함께 걸어온 30여 년. 이제 도자기 장인 유기정 씨는 도자기 장인으로의 길이 그가 구운 도자기의 고운 빛처럼 곱기를 바란다.